

결 정

2018 - 3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2월 18일자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투신 자살? “선배 간호사 괴롭힘 있었다” 일하기 힘들다 진술까지」 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18일자 「자살 추정 대형병원 간호사, '태움'이 벼랑 끝으로 몰았나」 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8일자 「간호사 자살... '태움 문화' 또 논란」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18일자 「간호사 자살 배경에 '태움' 관행?... “벼랑 끝 몰렸었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 조선닷컴, 한경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투신 자살? “선배 간호사 괴롭힘 있었다” 일하기 힘들다 진술까지

박재영 기자 2018-02-18 18:23:20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여자 간호사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씨 남자친구가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간호사 온라인 익명 게시판 ‘너스 스토리’에 글을 올리고 “여자친구의 죽음이 그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호사 윗선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라는 것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경찰은 A씨로부터 최근 “일하기 힘들다” “나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A씨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병원 내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RVR4SFB93>>

(조선닷컴)= 『자살 추정 대형병원 간호사, '태움'이 벼랑 끝으로 몰았나

입력 : 2018.02.18 16:49 (이하 생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0842.html>

(한경닷컴)= 『간호사 자살... '태움 문화' 또 논란

입력 2018-02-18 19:04, 수정 2018-02-19 05:07 (이하 생략)』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1821521>>

(국민일보)= 『간호사 자살 배경에 '태움' 관행?... “벼랑 끝 몰렸었다”

입력 : 2018-02-18 16:22/수정 : 2018-02-18 20:31 (이하 생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39184&code=61121111&cp=nv>>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보도 당시 자살 여부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원인이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인 것처럼 기술하였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